



케이바이오랩 '비꽃(VI:KKOT) 하늬'

국내 첫 미생물 조절 화장품 “피부 고민 잡는다”

피부에는 사람마다 고유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개인 고유의 미생물을 천연 추출물로 조절하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화장품이 있다. 케이바이오랩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비꽃(VI:KKOT) 하늬'다. 2016년 김태중 국민대 임상생명공학과 교수가 차린 회사다.

◆미생물로 피부환경 개선
김 케이바이오랩 대표는 30년 동안 미생물 연구한 한우물을 팔았다. 피부에 서식한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 미용과 피부개선 등 분야로 관심이 옮겨갔다. 김 대표가 회사를 창업해 국내 최초 미생물 조절 화장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김 대표는 “피부가 좋아지려면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며 “피부에 살고 있는 좋은 미생물을 활성화하고 나쁜 미생물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생명공학 석사학위를 딴 뒤 미국 UC에서 미생물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생물학자다.

기존 화장품이 피부에 직접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비꽃 하늬는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피부 환경에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되면 피부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천연 추출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김태중 케이바이오랩 대표가 피부 미생물 조절 화장품 '비꽃 하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천연 추출물로 미생물 활성화 피부 수분·탄력 등 효과 입증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도 제품군 확대... 내년 50억 목표

보유하고 있는 400여 개 식용식물 추출물을 모두 테스트했다. 그 결과 19개 물질이 피부 미생물의 활동을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5개 추출물을 조합했다. 임상 시험을 통해 피부에 좋지 않은 황색포도상구균을 억제하고 피부에 좋은 표피포도상구균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이를 이용한 화장품 비꽃 하늬를 크

립과 로션 등 7가지 종류로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면역력 강화로 아토피 증상 완화 비꽃 하늬의 효능은 최근 입증됐다. 대한 피부과학연구소가 민감성 피부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 이 제품을 한 달 동안 이용한 사람의 피부 내 수분 함량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372%, 피부 탄력을 나타내는 치밀도는 22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결이 45% 좋아졌고 피지분비 조절 효과도 50%에 달했다. 피부의 붉은기도 31% 완화되는 등 피부 진정효과도 확인됐다.

케이바이오랩은 미세먼지가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막는 미세먼지 흡착 방지 개선율이 37%로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케이바이오랩

설립	2016년 11월
업종	생물학제품 연구개발
위치	대전 유성구
제품	'비꽃 하늬' 화장품
특징	피부 미생물 조절

있다. 김 대표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피부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각종 피부 질환을 야기한다”면서 “비꽃 하늬를 바르면 미세먼지가 덜 달라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좋은 미생물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토피 등 피부질환 증상 완화에도 쓰일 수 있다. 노화로 피부가 건조해진 노인의 피부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케이바이오랩은 이 같은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는 마스크팩, 핸드크림, 도너, 세럼, 클렌저, 립밤, 미스트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사용 라인과 아토피용 라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비꽃 하늬 제품은 크림이 3만 5000원, 로션이 3만 2000원에 판매된다. 내년 말까지 매출 목표는 50억원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 (si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www.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기업가치 1조원)

국내 유니콘기업 8개 중 7개 모태펀드 투자가 '성장 발판'

야놀자·우아한형제들·위메프 등 혁신창업 지원 및 후속 투자

▶ 모태펀드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A사는 2013년 창업 이듬해인 2014년 매출이 1억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2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벤처펀드 투자를 받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4년 대비 4270배가량 성장했다. 2010년 설립된 유니콘 B사도 2015년 모태펀드로부터 100억원을 투자받아 성장 날개를 달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96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중 7개가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의 투자(모태펀드)로 유니콘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7개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의 첫 투자 시점은 창업 이후 7개월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양했다. 7개사 중 4개사는 창업 초기(창업 3년 이내) 단계에서 첫 번째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개사는 업력 3년 이후 성장 단계에서 첫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니콘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스타바리퍼블리카 스야놀자 스웬앤 피코스메틱 스엘로모바일 스우아한형제들 스위메프 스크래프톤(옛 블루홀) 스쿠팡 등 8개사다. 유니콘을 제외하면 다른 기업들도 모태펀드 투자를 받아 큰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고 중소기업부는 전했다. 중소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함께 2014~2018년 모태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모펀드(fund of funds), 민간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자 등의 출자를 받아 벤처펀드(모태펀드)를 조성 및 운용한다.

2332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고용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투자 직전 연도 대비 3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당 평균 1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벤처펀드 투자유치 기업이 같은 기간 평균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것을 고려하면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더 컸다고 중소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440개는 투자 직전 연도 대비 지난해 말 기업당 고용 증가가 18명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모태펀드에 4조 500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예산의 다섯 배인 22조 4000억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했다. 이후 5400여 개 벤처·창업기업 등에 약 15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과감한 재정 투입과 모태펀드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ikesmile@hankyung.com

LG하우시스, 독일 가구전시회 참가

가구용 필름 50종 선보여

LG하우시스가 지난 21~24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전시회 '인터zum 2019(사진)'에 참가해 친환경 및 기능성을 더한 가구용 필름 50여 종을 선보였다. 가구용 필름은 가구 소재인 합판(MDF/PB) 표면에 붙여 나무·마블 등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면 마감재로 주방 싱크대, 옷장, 책상 등 여러 가구에서 사용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하우시스는 페트병 재활용 제품인 '리사이클 필름'을 포함해 친환경 제품과 지문이 잘 남지 않는 기능이 있는 '수퍼 매트', 냉각 등 가전제품에 주로 쓰이던 금속 디자인을 적용한 '메탈' 등 다양한 가구용 필름을 전시했다. 지난해 일본 업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에 성공한 '리사이클 필름'의 기능을 알리기 위해 별도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 지난해 9월 '리사이클 필름' 출시 직후 유럽 가구업체들에 공급을 시작했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및 북미 업체 10여 곳과 제품 공급 상담을 했다. LG하우시스는 약 4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가구용 필름 시장에서 일본 업체와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시장인 서유럽을 비롯해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고객사를 확대, 글로벌 1위에 올라선다는 게 회사의 목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기중앙회, 유럽에 시장개척단 파견

총 55건 450만달러 성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일부터 6일간 오스트리아 빈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우리 중소기업 8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사진)을 파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마·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중시장 진출과 수출지역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현지 유력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회를 통해 오스트리아(빈)에서 24건 200만 3000달러, 크로아티아(자그레브)에서 31건 249만 2000달러 등 총 55건, 449만 5000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아쿠아 슈즈 및 휴대폰 방수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다카팩 인화선 본부장은 “이번 수출상담을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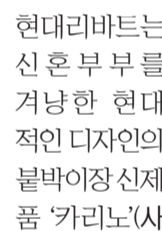


3000달러, 크로아티아에서 5000달러 상당의 샘플 주문을 받았다”며 “연말까지 2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화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는 철저한 준비와 중소기업의 도전정신으로 공략한다면 주변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신혼부부 겨냥 불박이장 현대리바트, '카리노' 등



현대리바트는 신혼부부를 겨냥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불박이장 신제품 '카리노(사진)'와 '제누아즈'를 출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제누아즈 불박이장은 문짝 전체에 인조 가죽(PVC)이 표면재로 적용된 게 특징이다. 표면에는 '스마트 클린' 코팅을 적용해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지울 수 있다. 가격은 240만원(3140mm 기준)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이브자리, '케어텍스' 출시 기존 침구원단 브랜드 통합

이브자리는 기존 기능성 침구원단 브랜드 네 가지를 통합한 원단 브랜드 '케어텍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케어텍스로 통합된 기능성 원단은 스알레르기에어 스보디케어 스슬랩케어 스인바이런먼트케어 등이다. 알레르기에어 원단은 집먼지·진드기를 방지하는 가공기술을 적용했다. 보디케어는 흡습성과 통기성이 좋고, 슬랩케어는 감촉이 특히 부드러운 원단이다. 인바이런먼트케어는 자연유래 천연 섬유인 면 모달 텐셀 소재의 원단이다.

윤종용 이브자리 대표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자사 기능성 원단 브랜드를 케어텍스로 통일했다”며 “이브자리의 수면 환경 기술력을 고객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압구정 역세권 “성형외과 병원 최적” 사옥·수익·사업·투자용·빌딩 매각

1. 매각 부동산 개요 (성형타운거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9 MK빌딩	면적	대지 772㎡/건물 1,890㎡ (250% 중 178% 사용)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미관지구, 지하1층/지상4층
-----	------------------------	----	------------------------------------	-------	--------------------------------

2. 위치 및 특징 용도

- ◎ 압구정역 : 7차선 광대로변 코너, 전층 약국, 성형외과 입점
- ◎ 추천용도 : 병원, 사옥, 자산운영상, 재단 등 투자용

3. 매각 금액 : 삼백삼십억원 (₩33,000,000,000), 융자 280억 가능

4. 매각 절차 및 주관사 (매매시까지 전속계약)

- ◎ 자료공개 → 매수의향서 접수 → 우선협상자 선정 → 계약체결

매각주관사 프리엠에셋부동산중개(주) 매각문의 : 010-2009-7767 전속계약 담당 : 민진기
 법무담당 : 한국 법무사사무소 정규철 E-mail : mjk365@naver.com